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또래표상의 인과효과*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Withdrawal and Aggression :
Causal Effects of Rejection, Victimization, and Negative Representation
by Parents and Peers*

김귀연(Kwee Yeon Kim)¹⁾

김경연(Kyong Yeon Kim)²⁾

ABSTRACT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21 children selected from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in Pusan.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s and peers varied by type of peer maladjustment(aggressive type and withdrawn type, compared with a control group). Particularly, the level of factors associated with peers varied from the control group by peer maladjusted types(aggressive types and, withdrawn types). Causal relationships of parents' rejection, victimization, negative representation by parents and by peers on child's maladjustment varied by behavior types. Negative representation of peers had a direct effect only on withdrawal. On the other hand, negative representation of peers had no effect on aggression. Victimization had a first total effect on both withdrawal and aggression.

Key Words : 거부적 양육(rejection by parents), 또래괴롭힘(victimization), 부정적 표상(negative representation), 위축(withdrawal), 공격성(aggression).

* 2004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입니다.

¹⁾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²⁾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wee yeo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Hou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yforkid@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기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며 (Rubin & Ross, 1982)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Piaget, 1962; 정선진, 2000에서 재인용). 그러나 모든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한 것은 아니며 어떤 아동들은 또래 부적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래 부적응이란 사회적 부적응을 또래관계로 한정시켜 명명한 것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역기능적 대응을 의미한다. 아동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중심적인 사회적 관계로 부각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부적응을 다루어왔다. 사회적 부적응 아동들은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괴하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으로 인해(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89) 활발한 또래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Hartup, 1989)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래부적응은 내재화 부적응 행동인 위축과 외현화 부적응 행동인 공격성으로 구분된다(Bovin, Thomassin & Alain, 1989; French, 1988, 1990; Ladd & Burgess;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Rubin, LeMare & Lollis, 1990; William & Asher, 1987). 위축은 주변 자극에 둔감하고 또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등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행동을 지칭하며(권명희, 1999), 공격성은 또래에게 해를 가할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강미식, 2001). 위축이나 공격성 등 또래 부적응 행동은 또래의 거부와 무시를 초래하며(Coie, Dodge, & Coppoteli,

1982; Coie & Kupersmidt, 1983; Dodge, 1983; French & Waas, 1985) 또래지위를 격하시켜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정신병리 등을 야기한다(Parker & Asher, 1987).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기질, 충동성(이춘재, 1999), 욕구좌절, 정서조절(박혜경, 2002), 자기통제(김선희, 2000), 부부갈등(이민식·오경자, 2000), 부모의 양육행동(박성연, 2002; 이경혜, 2004), 부모의 성격특성(도현심·박성연, 1992; 정승원, 도현심, 1997), 또래거부, 대중매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은경·박성연, 2004), 사회이해능력(변찬석·최기창, 2004)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발달특성상 타인의 수용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나 또래와의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경험에 취약하여 또래부적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빈번히 보고된다(도금혜·최보가·이지민, 2005; 도현심 외, 2005; 박혜경, 2002; 신건호, 2004; 신혜영·최해림, 2003; 이은경·박성연, 2004; Kupersmidt 등, 1990; Parke & Slaby, 1983). 부정적 사회적 경험은 주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Hartup, 1983; Putallaz & Heflin, 1990) 및 모델링 효과를 통해(Dekovic & Janssens, 1992) 또래부적응을 유발한다. 부모에게서 거부당한 아동은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타인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Coie, Dodge, & Coppoteli, 1982; French & Waas, 1985), 또래집단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Rubin, LeMare, & Lollis, 1990) 보고된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을 통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행함을 느끼며 위축되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쉽다. 특정 아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다수 또래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되

는(Olweus, 1984) 또래괴롭힘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또래관계를 위협하여 또래부적응행동을 유발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경험한 또래 괴롭힘은 2년 뒤의 공격성(Schwartz et al, 1998), 수줍음, 사회적으로 철회된 행동(Haselager & Van Lieshour, 1992) 및 우울, 위축(문혜신, 2001; 임지영·최보가, 1999; Boulton & Underwood, 1992; Crick & Grotpeter, 1996; Olweus, 1993; Parkhurst & Asher, 1992; Slee, 1994)등 또래부적응을 야기한다.

그러나 동일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아동에 따라 또래부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또래괴롭힘 등 사회적 경험이 아동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한다.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에 따르면 주어진 사회적 경험은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내적 표상에 매개된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학자들은 사회적 경험에 의한 내적 표상은 아동의 적응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Bowlby, 1973; Freud, 1958; Kernberg, 1975; Klein, 1932)주장한다. 내적 표상이란 누적된 사회적 경험에 대한 기억체계를 의미하며(김지영, 2002),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여 대응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Ainsworth, 1989; Bowlby, 1973; Sroufe & Fleeson, 1986). 지속적으로 또래 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또래는 차갑고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 또래 표상을 형성한다. 발달특성상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숙고 및 자기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정신적 표상으로 내면화하는 활동이 활발해진다(Cole & Kaslow, 1988; Livesley & Bromley, 1973). 일단 부정적 또래표상이 형성되면 이후의 또래상황, 특히 애매한 상황에서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또래의 행동이 적대적이라고 해석되

면 아동은 보복 전략을 세워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나(Erdley & Asher, 1996) 회피 전략을 세워 위축으로 대응하는 등(Crick & Dodge, 1994) 또래 부적응을 나타내게 된다.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이 또래표상의 배경을 누적된 또래경험으로 보는 데 비해 애착이론은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표상이 또래관계를 비롯한 가정 밖의 사회적 관계로 확대된다고 본다(Ainsworth, 1989; Bowlby, 1973; Sroufe & Fleeson, 1986). 즉 생 후 최초로 형성되어 누적된 부정적 부모-자녀관계경험이 부정적 부모표상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부정적 또래표상의 배경이 된다(Cassidy, Kirsh, Scolton, & Parke, 1996). 김영아(2000)에 따르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은 부정적 어머니표상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받은 또래표상 역시 부정적이었다. 김지영의 연구(2002)에서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나쁘고 차가운 부모표상에 매개되어 타인표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표상은 또래표상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또래관계가 빈번하지 못한 유아기에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진숙·조복희 2001; 이혜란, 1998; Page & Bretherton, 2001; 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 및 행동문제(Oppenheim, Emde, & Warren, 1997) 등 또래 부적응과 관련된다. 따라서 부모표상은 또래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위에서 고찰된 선행연구들은 또래괴롭힘과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부모표상 및 또래표상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모형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동안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에서 공격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다수(곽금주, 1993; 나유미, 2001; 박성연·안지영, 1992; Burks, Dodge, Price, &

Laird, 1999)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거부당하는 아이들이 공격적이기 보다는 위축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French, 1988; 1990).

공격성과 위축을 비교 연구함은 위축에 관한 표상모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줍음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 대해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며, 해석하는 인지적 인 방식 때문에(Gormally, Varvil-Weid, Raphael, & Sipps, 1981)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불안을 느끼고 신경과민이 되어(Buss, 1986)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Pilkonis, 1977). 또한 위축은 부정적 자기지각, 열등감, 소심함, 긴장 등과 관련되어(Quay, 1979) 공격성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으로 간주되므로 사회적 경험에 대한 표상의 영향에서도 또래부적응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마다 행동양상이 다양하여 공격성 수준만 높거나 혹은 위축 수준만 높거나 하지는 않는다. Dodge(1983)에 따르면 또래 거부된 아동들이 공격행동을 보이다가 위축되기도 한다. 아동은 위축, 불안하면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체적 호소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쉽다(강경미, 1994).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김은정·오경자, 1992; 신민섭·고승희, 1995; 조수철·남민, 1994; Carlson & Cantwell, 1980; Glaser, 1966; Hersov, 1976; Kovac, 1988; Marriage, 1986; Puig-Antich, 1982; Rutter, 1972)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또래부적응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요구되나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또래 부적응 집단과 또래부적응을 보이

지 않는 집단을 비교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적응집단과 일반집단의 관련변인 수준 차를 알아봄은 일반아동에 비교한 또래 부적응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들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또래부적응이 부정적인 부모 경험 및 또래 경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내적 표상에 매개된 간접적인 영향도 받는다는 사회정보처리적 관점과 부모표상이 또래표상의 배경이라는 애착이론적 관점을 통합한 가설적 경로모형이 경험적으로 지지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할 경로모형의 종속변인은 또래부적응이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된 독립변인은 또래괴롭힘과 부모의 거부적 양육이다. 그리고 매개변인으로는 부모표상과 또래표상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경로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또래 부적응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위축과 공격성 발달에 관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앞서,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의 차이를 일반집단과 비교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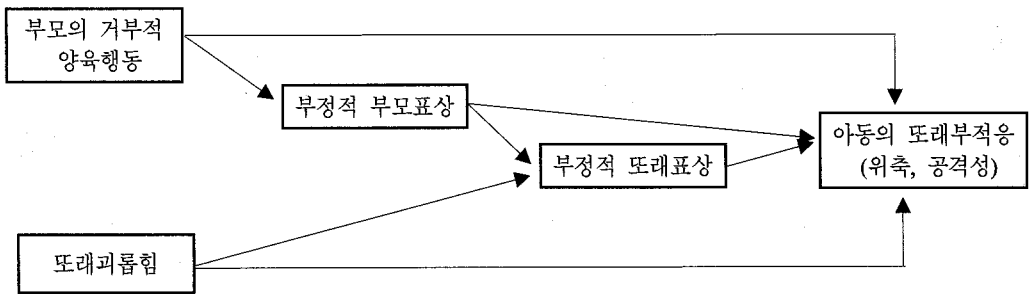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은 어떠한가?

2-1 아동의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은 어떠한가?

2-2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은 어떠한가?



〈그림 1〉 아동의 또래 부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가설적 인과모형

3.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정보처리 모델

지난 몇 십년간 아동의 정신병리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써 사회인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인지이론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Kendall & Urbain, 1982).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이 환경이나 경험 그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표상에 따라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Crick과 Dodge(1994)는 사회인지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사회정보처리모델을 제안하였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따르면 아동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반응능력, 과거경험에 의한 기억이나 특정 목적 또는 이에 따른 반응양식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일련의 사회적 단서 등과 같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조건을 지니고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과제에 직면한다. 이 때의 아동의 행동은 제시된 사회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아동의 생물학적 심리적 조건들 중에서 특히 아동의 사회적 관계

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 표상이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정보처리모델이 적용된 사회적 행동으로는 주로 공격성, 우울, 친사회적 행동 등이다. 부정적 사회적 경험에 의해 부정적 내적 표상을 가진 아동은 사회정보처리과정 6단계에서 편파된 방식으로 반응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킨다.

2. 애착이론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때의 정서적 경험을 기초로 자기와 애착대상 및 외부세계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구조화된다.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이란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거나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Main, Kaplan, & Cassidy, 1985)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 각 개인은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고, 형성된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은 이후 애착체계의 활성화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Bowlby, 1973). 즉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적 실행 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그것은 후속적 관계형성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한 아동은 그 애착 대상에게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지는 반면, 애착대상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도와준다고 느낄 때, 영아는 애착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가진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부산광역시 3개구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순집락표집에 의해 추출하였다. 1개 초등학교의 각 5, 6학년 2학급씩 140명, 그리고 나머지 2개 초등학교의 5학년에서 4학급씩 284명과 6학년에서 3학급씩 216명을 추출한 총 640명이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설정한 것은 위축이 아동후기의 또래수용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되고(Rubin, Lemare & Lollis, 1990) 특히 이 시기에 공격성의 안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Eron, 1987).

회수된 질문지 640부중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됐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618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 339명(54.9%), 여아 279명(45.1%)으로 남아가 더 많았으며, 학년별 구성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394명(63.4%), 초등학교 6학년이 224명(36.1%)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대졸보다 조금 더 많은 229명(37.2%)이었고, 어머니의 학력도 대부분

고졸 이상이였다(269명, 43.5%). 아버지의 직업분포를 보면, 일반회사, 공공기관 사무직이 178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분포의 경우 무직(가정주부 또는 학생)이 281명(45.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의 월수입은 151-200만원 이하가 89명(14.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18)

변인	구분	빈도(%)	
아동의 성별	남 아	339(54.9)	
	여 아	279(45.1)	
아동의 학년	초등학교 5학년	394(63.4)	
	초등학교 6학년	224(36.1)	
부모의 학력	부		모
	초등학교 졸업	7 (1.1)	13(2.1)
	중학교 졸업	22(3.5)	30(4.8)
	고등학교 졸업	229(37.2)	269(43.5)
	전문대졸업/대학교 중퇴	31(5.0)	27(4.4)
	대학교 졸업	88(30.4)	156(25.2)
	대학원 이상	48(7.8)	30(4.9)
	무응답	93(15.0)	93(15.1)
부모의 직업	부		모
	무 직	8(1.3)	281(45.5)
	임시고용직, 단순노무직	11(1.8)	13(2.1)
	판매·서비스직	56(9.0)	86(13.9)
	숙련·반숙련직	113(18.2)	24(3.9)
	소규모 자영업	56(9.0)	35(5.7)
	일반회사, 공공기관 사무직	178(28.8)	63(10.2)
	일반 전문기술직	52(8.4)	34(5.5)
	고위 전문직	28(4.5)	10(1.6)
	기 타	92(14.9)	56(9.1)
무응답	25(4.1)	16(2.5)	
가정의 월수입	50만원 이하		26(4.2)
	51-100만원 이하		58(9.4)
	101-150만원 이하		83(13.4)
	151-200만원 이하		89(14.4)
	201-250만원 이하		59(9.5)
	251-300만원 이하		74(12.0)
	301-350만원 이하		51(8.3)
	351만원 이상		71(11.5)
무응답		107(17.3)	

2. 연구도구

1) 위축

위축은 김선희(2000)의 사회적 위축을 내용으로 하는 수줍음 행동 7문항과 Cassidy와 Asher (1992)의 위축 3문항 중에서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문항은 내용이 중복되어 1문항을 제외하고,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선희의 행동문제 척도는 신체적 위축은 위축으로 사회적 위축은 수줍음으로 구분하였다. 또래관계 상황에 맞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를 "아이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로 수정하여 아동보고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83이었다.

2) 공격성

공격성은 김선희(2000)의 행동문제 중 공격성 13문항, 노안녕(1983)의 공격성 18문항, 윤리라(1998)의 반응적 공격성 6문항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 17문항, 평균점수가 지나치게 낮은(1.5 이하) 3문항, 요인분석시 요인 부하량 (.05기준)이 낮은 7문항을 제외하여 주도적 공격성 4문항, 반응적 공격성 3문항, 관계적 공격성 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른 아이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린다" 등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76이었다.

3)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¹⁾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박성연과 이숙(1990)

의 '권위주의적 통제'영역 척도 9문항에서 거부적 양육행동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박성연과 이숙(1990)의 '권위주의적 통제' 척도는 적대차원과 통제차원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영역이라서 '부모가 결정한 일에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십니까?'와 같이 명백히 통제요인이라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거부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화가 날 때,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십니까?" 등 부모용 문항을 "부모님께서서는 화가 나시면, 나에게 화풀이를 하신다."등 아동용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를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태도로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80이다.

4) 또래괴롭힘 경험

또래괴롭힘 척도는 임지영(1999)이 사용한 또래괴롭힘 피해척도 11문항에서 전체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내용은 "반아이가 나를 싫어하게 하려고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와 같은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

1) 거부적인 부모는 자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불만을 나타내며 화를 자주내는 유형을 말한다. 거부적인 양육태도란 대개는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고함을 지르거나 위협을 가하며 명령을 하는 등의 언어적 행동을 포함하기도 한다(김경희·황혜정, 1998). 거부는 적대심과 공격성, 무관심과 무시라는 두개의 중요한 방식으로 표현된다(Rohner, 1980)

수 Cronbach α 값은 .86이다.

5) 부정적 부모표상

부정적 부모표상은 김지영, 권석만(2002)의 대인표상척도 중 평가차원인 ‘호의성’ 7문항 중 아동용으로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4문항을 보완하여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여 역산하였다²⁾. 김지영, 권석만(2002)의 척도는 Osgood의 형용사쌍을 토대로 Likert식 문장형으로 개발한 것이다. 아동용에 맞게 “나의 어머니는 호의적인 사람이다” 등의 문항을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이다.”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부정적 부모표상은 Cronbach α =.89이다.

6) 부정적 또래표상

부정적 또래표상은 김지영·권석만(2002)의 대인표상척도 중 평가차원인 ‘호의성’ 7문항 중 아동용으로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여 역산하였다. 김지영, 권석만(2002)의 척도는 Osgood의 형용사쌍을 토대로 Likert식 문장형으로 개발한 것이다. 아동용에 맞게 “주변 사람들은 호의적이다” 등의 문항을 “우리반 아이들은 대체로 좋다.”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의

2) 형용사의 부정은 반드시 그 반대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중간정도’를 의미하는 ‘비호의적’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대립어를 간접표현 또는 완곡표현하는 것이다(홍순성, 1990). 따라서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꺼리는 아동에게 호의적 부모표상을 측정 후 역산하여 ‘부정적 부모표상’을 간접측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미한다. 부정적 또래표상은 Cronbach α =.82이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 검사도구의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의적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1회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선별하여 1회의 본조사를 통해 설문지 배부 및 회수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WIN 10.0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을 조합한 집단별로 관련변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GLM)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점수를 구하여 알기 쉽게 도식화하였다.

<연구문제2>에서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 및 관련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 각각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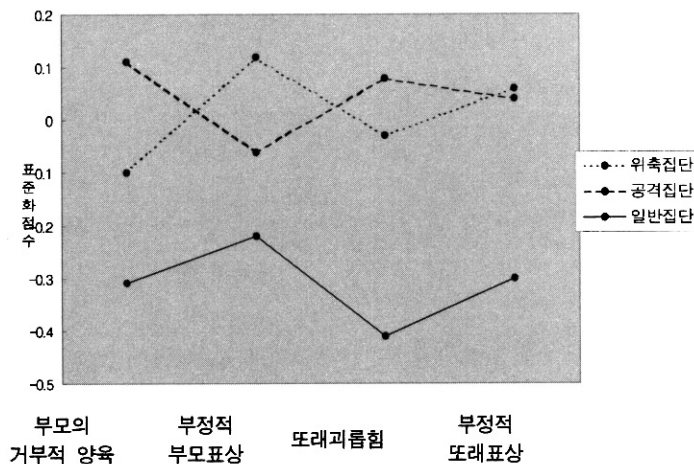
1.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의 차이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라 관련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공격성이 평균치 23.55 이상인 동시에 위축은 평균치 21.54 이하

<표 2>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의 차이 (N=422)

변인	집단(N)	M(SD)	DF	F
부모의 거부적 양육	위축집단(N=104)	36.96(11.06) a b	(2, 390)	6.47**
	공격집단(N=116)	39.30(12.43) a		
	일반집단(N=187)	34.6(9.49) b		
또래괴롭힘	위축집단(N=110)	15.63(6.00) a	(2, 416)	12.15***
	공격집단(N=115)	16.29(5.93) a		
	일반집단(N=191)	13.38(4.75) b		
부정적 부모표상	위축집단(N=107)	13.21(6.40) a	(2, 419)	4.32*
	공격집단(N=115)	12.20(4.82) a b		
	일반집단(N=183)	11.26(5.67) b		
부정적 또래표상	위축집단(N=108)	10.25(4.02) a	(2, 419)	6.98**
	공격집단(N=115)	10.18(3.63) a		
	일반집단(N=185)	8.84(3.69) b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아동의 또래 부적응 집단별 관련변인의 차이

인 집단을 공격성집단으로, 위축이 평균치 이상인 동시에 공격성은 평균치 이하인 집단을 위축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공격성이 평균치 이하인 동시에 위축도 평균치 이하인 집단을 일반집단으로 규정하였다.

3개 집단간 관련변인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3)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변인들의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 원점수를 z-score로 변환하였다.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고, 이러한 차이를 표준화점수(zscore)³⁾로 도식화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2>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F=6.47, p<.01$), 부정적 부모표상($F=4.32, p<.05$), 또래괴롭힘($F=12.15, p<.001$), 부정적 또래표상($F=6.98, p<.01$) 등 모든 독립변인에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부적응 집단과 일반집단 간 사후검증 결과를 비교하면, 부적응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부모의 거부적 양육, 부정적 부모표상, 또래괴롭힘, 부정적 또래표상의 수준이 높았다. 공격집단과 위축집단 모두 특히 또래괴롭힘과 부정적 또래표상이 일반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또래요인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적응 집단간 사후검증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격집단은 위축집단에 비해 부모의 양육은 더 거부적으로 지각하지만 부모표상은 위축 집단보다 덜 부정적임이 주목된다. 또래괴롭힘, 부정적 또래표상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2.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것은 <표 3>와 같다.

<표 3>에 따르면 종속변인인 위축 및 공격성과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은 $r=.05\sim.31$ 의 범위에 있다. 위축과 독립변인간의 관련성을 크기 순으로 보면, 또래괴롭힘 경험, 부정적 또래표상,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 부정적 부모표상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경험할수록, 또래표상이 부

정적일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일수록, 부모 표상이 부정적일수록 위축을 더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공격성과 독립변인간의 관련성을 크기 순으로 보면, 또래괴롭힘 경험,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 부정적 또래표상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정적 부모 표상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를 더 경험할수록, 또래표상이 부정적일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일수록, 공격성을 더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편, 독립변인들간 상관계수는 .12에서 .45까지 분포하고 있어 독립변인들간 상관이 높을 경우(.70 이상, Guilford : 오택섭, 1991년에서 재인용) 의심되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정충영 · 최이규, 2002)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아동의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

아동의 위축에 대하여 관련변인들을 경로에 따라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되, 공격성 효과가 혼입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두는 단계에서는 공격성을 통제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및 인과효과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도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있다.

<표 3> 연구변인들 간의 적률상관계수

(N=618)

변 인	1	2	3	4	5	6
1. 부모의 거부적 양육	1.00					
2. 부정적 부모표상	.22***	1.00				
3. 또래 괴롭힘 경험	.27***	.16***	1.00			
4. 부정적 또래표상	.12**	.45***	.36***	1.00		
5. 위 축	.20***	.14**	.31***	.24***	1.00	
6. 공격성	.24***	.05	.29***	.17***	.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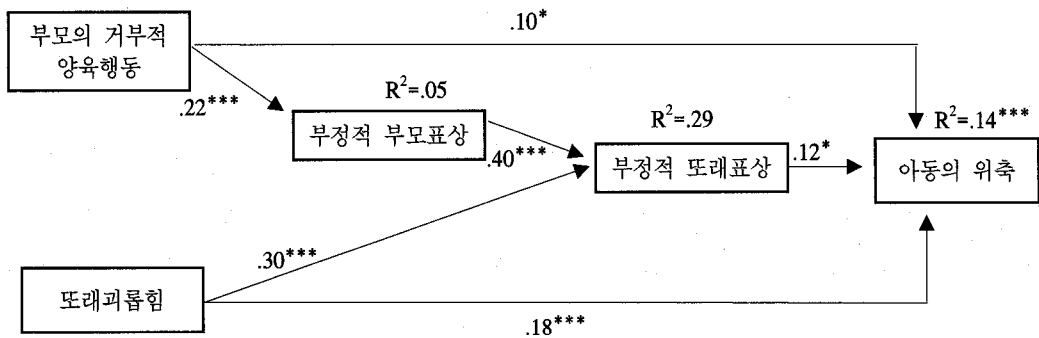
** $p<.01$ *** $p<.001$

〈표 4〉 아동의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및 인과효과 (N=618)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인 과 효 과			R^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 부모표상	부모의 거부적 양육	.22**	.22	-	.22	.05***
부정적 또래표상	부정적 부모표상	.40***	.40	-	.40	.29***
	또래괴롭힘 경험	.30***	.30	-	.30	
아동의 위축	부모의 거부적 양육	.10*	.10	.01	.11	.14***
	부정적 부모표상	.05	-	.05	.05	
	또래괴롭힘 경험	.18***	.18	.04	.22	
	부정적 또래표상	.12*	.15	-	.15	
	*공격성	.14**				

* $p<.05$ ** $p<.01$ *** $p<.001$

* 독립변인과 위축과의 인과관계는 제3요인의 영향이 통제된 후에도 성립되어야 한다(장상희·홍동식, 2002). 공격성으로 인해 위축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격성을 제3요인으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시 통제변인으로 투입했지만 부가적 변인이므로 경로모형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3〉 아동의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표 4〉과 〈그림 3〉에 의하면, 부정적 또래표상은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beta=.12, p<.05$)을 미쳤다. 또래괴롭힘 경험은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beta=.18, p<.001$)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또래표상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beta=.30, p<.001$)을 미쳤다. 부정적 부모표상은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정적 또래표상을 통해 위축에 간접적인 영향($\beta=.40, p<.001$)만 미쳤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beta=.10, p<.05$)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부모표상(β

$=.22, p<.01$)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아동의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효과 분석에 의하면, 아동의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정적 또래표상, 또래괴롭힘 경험,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괴롭힘 경험, 부정적 부모표상,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다. 아동의 위축에 대한 관련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

한 총효과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경험(.22), 부정적 또래표상(.15),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11) 및 부정적 부모표상(.0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아동의 공격성에 대하여 관련변인들을 경로에 따라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되, 위축이

동반되어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두는 단계에서는 위축을 통제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및 인과효과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도식한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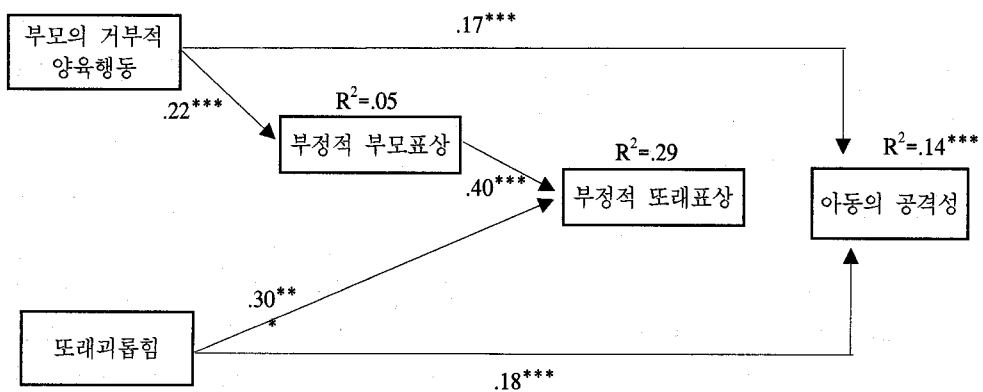
<표 5>과 <그림 4>에 의하면, 부정적 또래표상은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래괴롭힘 경험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β =

<표 5>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및 인과효과 (N=618)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인과효과			R 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 부모표상	부모의 거부적 양육	.22**	.22	-	.22	.05***
부정적 또래표상	부정적 부모표상	.40***	.40	-	.40	.29***
	또래괴롭힘 경험	.30***	.30	-	.30	
아동의 공격성	부모의 거부적 양육	.17*	.17	-	.17	.14***
	부정적 부모표상	.06	-	-	-	
	또래괴롭힘 경험	.18***	.18	-	.18	
	부정적 또래표상	.08*	-	-	-	
	*위축	.14**	-	-	-	

* $p<.05$ ** $p<.01$ *** $p<.001$

* 독립변인과 공격성과의 인과관계는 제3요인의 영향이 통제된 후에도 성립되어야 한다. 위축으로 인해 공격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축을 제3요인으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시 통제변인으로 투입했지만 부가적 변인이므로 경로모형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관련성

.18, $p < .001$)만 미쳤다. 부정적 부모표상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beta = .17, p < .001$)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이 지지 되지 못했다. 위축에 대한 모형과 비교하면 부정적 또래 표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주목되는 결과이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인과효과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괴롭힘 경험,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접적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경험(.18),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17)의 순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또래 부적응 유형인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의 차이와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른 부모요인 및 또래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 61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부적응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부모가 더 거부적 양육을 하고 부모표상이 더 부정적이며 또래 괴롭힘 경험이 더 많고 또래표상도 더 부정적이었다. 부적응 유형 중 위축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의 거부적 양육에서는 차

이가 없었지만 부모에 대한 표상은 더 부정적이었다. 공격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이 더 거부적이었지만 부모표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위축아동은 공격아동보다 부모의 양육은 덜 거부적이지만 부모표상은 더 부정적이었다. 두 집단 모두 또래괴롭힘과 또래표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또래 부적응에 대한 부모요인 및 또래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위축에 대하여 또래표상은 직접적 영향만을 미쳤고 또래 괴롭힘은 직접적 영향 및 또래표상에 매개된 간접적 영향도 미쳤다. 또 부모의 양육은 직접적 영향 및 부모표상에 매개되어 그리고 부모표상은 또래표상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만을 미쳤다. 다음으로 공격성에 대하여 또래표상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부모의 양육 및 또래 괴롭힘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만 미쳤다. 그리고 부모표상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축아동은 공격아동에 비해 실제 부모와의 경험보다 부모표상이 부정적이고 공격아동은 위축아동에 비해 실제 부모와의 경험보다 부모표상이 긍정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공격-거부아는 위축-거부아에 비해 심리적 적응에서는 문제를 보이지 않고(김윤경·이옥경, 2001; 이은미, 1994), 공격적인 아동들이 비정상적으로 자기 가치감과 행복감을 높게 보고한 결과(Lochman & Dodge, 1994) 및 부모표상이 자이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김지영·권석만, 2002)와 관련된 것 같다. 공격아동이 자기가치감이 높듯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축아동의 부모표상이 부정적인 것은 비록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회피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특히 부모표상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지영·김석만, 2002)와 일치한다.

둘째, 또래 부적응에 대한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련성을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라 규명한 결과, 인과모형에 차이가 있었다. 위축의 경우, 사회적 경험이 아동의 내적 표상에 매개되기도 하므로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이 지지된 반면 공격성에는 또래표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사회적 경험이 아동의 내적 표상에 매개된다는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이 모든 행동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님을 시사한다. 위축은 부정적 자아지각을 비롯한 인지적 부적응과 관련되므로 사회적 상황에서 미리 또래가 차갑고 적대적이라는 인지적 평가를 함으로써 움츠러들거나 회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버클리 생활지도 연구에 의하면 수줍음타고 위축된 성격양식은 성장해서도 바뀌어 지지 않으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Caspi, Elder, & Bem, 1988). 이것은 사회적 경험에 대한 표상이 아동의 발달에 안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은 또래 행동에 대한 적대적 해석이 아니라 부정적 경험에 대한 모델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작용 및 아동 개인적 기질인 충동성(이춘재, 1999) 등이 작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행동이 일어나는 내적과정은 행동유형 별로 다르므로 추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이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을 지지하는 선행연구(곽금주, 1993; 나유미, 2001; 박성연·안지영, 1992; Burks, Dodge, Price, & Laird, 1999)와 다르게 나타난 또 다른

해석은 공격성에 대한 위축의 영향을 통제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공격성에 위축이 동반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공격성에 대한 위축의 영향을 통제하게 되면 부정적 또래표상과 공격성의 관계는 약화되므로 부정적 또래표상은 공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래부적응 유형에 대한 인과모형에서 또 다른 차이점은 위축보다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위축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보다 어머니의 수줍음, 사회성에 더 영향을 받는데 비해(도현심·박성연, 1992; 정승원·도현심, 1997), 공격성은 아버지의 공격성보다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에 더 영향을 받기(박성연, 2002)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래부적응 유형에 대한 인과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다음과 같다.

또래부적응 관련변인 중에서 또래괴롭힘 경험은 위축과 공격성 모두 또래표상에 매개되는 간접효과보다 직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보다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또래괴롭힘 경험이 또래 부적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부정적 또래표상에 대한 부정적 부모표상과 또래괴롭힘의 상대적 영향력은 부정적 부모표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가 차갑고 나쁘다는 부정적 판단에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실제적인 또래관계경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래표상에 대한 배경요인으로 부모표상을 가정하는 애착이론적 관점이 지지된 것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표상에 대한 어머니표상의 영향이 또래관계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영아, 2000)와도 일치한다.

아동의 또래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경험의 상대

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보다 또래 괴롭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또래 부적응을 유발하는 사회적 경험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주로 부모의 영향만 중요시하였으나 또래 괴롭힘의 영향이 부모경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부적응 연구에서 또래경험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부모의 거부적 경험보다 또래부적응에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보다 또래관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영아, 2000).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이 지지된 위축 모형의 경우, 부정적 부모표상은 부정적 또래표상에 매개되어 아동의 또래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표상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유아기 연구들(이진숙·조복희 2001; Oppenheim, Emde, & Warren, 1997; Page & Bretherton, 2001; 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과는 다른 결과이며 또래관계가 활발해지는 아동기에는 또래표상이 또래부적응에 더 중요한 유발요인이라는 정보를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년의 부적응(김영아, 2000; 김지영, 2002)의 경로를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공격성과 위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다. 공격성과 위축 모두 또래괴롭힘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또래부적응 아동에겐 또래지지 같은 긍정적인 또래경험이 권장된다. 위축 아동은 공격아동에 비해 실제 부모와의 경험보다 부모표상 수준이 부정적이며 위축에는 부정적 또래표상이 원인이므로 긍정적 내적 표상을 가지게 하는 인지조절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공격아동은 부모표상보다 더 부정적인 부모경험을 하며 공격성에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위축보다 영향이 크므로 공격아동의 부모가 온정과 수용의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또래부적응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이 더 거부적이고 또래 괴롭힘 경험이 더 많고 부모표상 및 또래표상이 더 부정적이다. 또래괴롭힘 경험, 또래표상수준에서 위축아동과 공격아동 간 차이는 없으며 공격아동의 부모는 위축아동에 비해 더 거부적이지만 공격아동의 부모표상이 위축아동에 비해 더 호의적이다.

둘째, 또래 부적응에 대한 부모요인 및 또래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은 또래부적응 유형에 따라 다르다. 위축에 대하여 또래표상은 직접적 영향만을 미치고 또래 괴롭힘은 직접적 영향 및 또래표상에 매개된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 또 부모의 양육은 직접적 영향 및 부모표상에 매개되어 그리고 부모표상은 또래표상에 매개되어 간접적 영향만을 미친다. 다음으로 공격성에 대하여 부모표상 및 또래표상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 및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만 미친다. 아동의 위축에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이 내적표상에 매개되어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이 지지된 반면, 아동의 공격성에는 내적 표상에 매개되지 않아서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이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 심리적 요인인 부정적 부모표상과 부정적 또래표상을 측정하여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른 관계를

밝혀 아동의 또래 부적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과 애착이론과 사회정보처리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 경험이 내적 표상에 매개되어 또래 부적응으로 발달하는 경로를 또래 부적응 유형에 따라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질문지 검사를 통해 아동 자신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 피해를 자기 보고식으로 확인한 것인데, 타인보고와 같은 객관적 방법이 병행되면 자료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행동적 특성만 검토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도 관련변인에 포함시키면 부모표상의 형성에 대한 보다 광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경미(1994). 소아기 우울증-소아기 우울증의 개관과 발달학적 측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5(1), 3-11.

강미식(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및 아동 개인적 변인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1993).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15-35.

권명희(1999). 자기주장훈련이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및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1), 12-26.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아(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경·이옥경(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2), 65-82.

김은정·오경자(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상.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1), 117-127.

김지영·권석만(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4), 705-726.

김지영(2002).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유미(2001).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연계 : 인지표상 모델의 매개 역할. *한국아동학회지* 22(1), 83-93.

노안녕(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금혜·최보가·이지민(2005).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2), 57-67.

도현심·박성연(1992). 한국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325-338.

도현심 외(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 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85-195.

문혜신(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불안에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한국아동학회지*, 23(5), 35-50.

박성연·안지영(1992).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따른 아

- 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3(2), 161-174.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찬석·최기창(2004). 사회적 위축아동의 사회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265-287.
- 신건호(2004). 인간지향적 부모자녀관계와 지위지향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공감 과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2), 143-159.
- 신민섭·고승희(1995).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한 아동기 우울증, 우울증 적 품행장애, 그리고 품행장애간의 진단분류적 접근. *정신의학*, 20(2), 94-106.
- 신혜영·최해림(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오택섭(1991).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나남출판사.
- 윤리라(1998).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2004). 부모빈곤과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5(5), 1-9.
- 이민식·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은경·박성연(2004). 양친이 안계신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91-204.
- 이은미(1994).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따른 비인기 아동집단의 자아지각과 또래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조복희(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 관계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2(3), 17-29.
- 이춘재(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11-25.
- 이혜란(1999). 아동의 이야기 꾸미기를 통한 정신적 표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최보가(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장상희·홍동식(2002). *사회통계학*. 서울 : 박영사.
- 조수철·남민(1994). 소아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 증상과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32(3), 381-397.
-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선진(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원·도현심(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18(2), 149-161.
- 정충영·최이규(2002).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 무역경영사.
- 홍순성(1990). 대립어와 부정. *한국학 논집*, 17(1), 85-98.
- Ainsworth, M. D.(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Burks, V. S., Dodge, K. A., Price, J. M., & Laird, R. D.(1999). Internal representational models of peers :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blematic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02-810.
- Buss, A. H.(1986). A theory of shyness. In W. H. Jones,

- J. M. Cheek, S. R. Briggs(Eds.), shyness :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pp. 39-46)
New York : plenum press.
- Carlson, G. A., & Cantwell, D. P.(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4), 445-449.
- Caspi, A., Elder, G. H., Jr., & Bem, D. J.(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4-831.
- Cassidy, J., & Asher, S. R.(1994). Young children 's thinking about lonelines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Cassidy, J., Kirsh, S., Scolton, K. L., & Parke, R. D. (1996). Attachment and representations of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892-904.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ie, J. D., & Kupersmidt, J. B.(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le, P. M., & Kaslow, N. J.(1988). Interaction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Affect Regulation. In S. B. Aller(Eds.), *Cognitive process in Depression*. NY London : Guilford Press.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Crick, N. R., & Dodge, K. A.(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Dekovic, M., & Janssens, J. M. A.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1989). *special schools for pupils with emotional and behaviour difficulties*, Circular 23/89. London : HMSO.
- Dodge, K. A.(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Dodge, K., & Coie, J.(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Erdly, C., & Asher, S.(1996). Children's social goals and self-efficacy perceptions as influences on their responses to ambiguous provocation. *Child Development*, 67, 1329-1344.
- Eron, L. D.(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Freud, S.(1958).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2, 98-108. London : Hogarth.
- French, D. C., & Wass, G. A.(1985). Behavior problems of peer-neglected and peer-rejected elementary-age children : parent and teacher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56, 246- 258.
- French, D. C.(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 :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s.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French, D. C.(1990).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girls.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Glaser, K.(1966).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565-574.
- Gormally, J., Varvil-Weid, D., Raphael, R., & Sipps, G. (1981). Treatment of socially anxious college men using cognitive counseling and skill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147-157.

-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vol.4, 103-196)*. New York : Wiley.
- Hartup, W. W.(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 Haselager, G. J. T., & Van Lieshour, C. F. M.(1992). 'Social and affective adiustment of self and peer reported victims and bullies', paper presented at the 5th European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sychology, Serville.
- Hersov, L.(1976). Emotional disorders. In M. Rutter & L. Hersov(Eds.), *child psychiatry-Modern Approaches*. London : Blackwell.
- Kendall, P. C., & Urbain, E.(1982). Social- cognitive approaches to therapy with children. In J . R. Lachenmeyer & M.S. Gibbs(Eds.),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New York : Gardner.
- Kernberg, O. F.(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 Jason Aronson.
- Klein, M.(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 Grove Press.
- Klohn, E. C., & John, O. P.(1998).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 A theory-based prototype approach.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115-140). New York : Guilford Press.
- Kovac, M.(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II.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Kupersmidt, Coie., & Dodge(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1045-1051.
- Livesley, W. J., & Bromley, D. B.(1973).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 : Wiley.
- Lochman, J. E., & Dodge, K. A.(1994). Social-cognitive processes of severely violent, moderately aggressive, and non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366-374.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 Marriage, K.(1986).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5)*, 687-691.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ie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truptive behavior in schools*. NY : John
- Olweus, D.(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 - term outcomes . In K. H . Rubin & J. B. Asendo(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 Erlbaum.
- Oppenheim, D., Emde, R. E., & Warren, S.(1997).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 *Child Development, 68*, 127-138.
- Page, T., & Bretherton, I.(2001). Mother-and father-child attachment themes in the story completions of pre-schoolers from post-divorce families : do they predict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1)*, 1-29.
- Parke, R. D., & Slaby, R. G.(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P. H. Mussen(Series Ed.) & E. M. Hetherington(Vol. Ed.) *Hand 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Parkhurst, T. J., & Asher, S. R.(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ilkonis, P. A.(1977). shyness, public and private,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measure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45*, 585-595.
- Puig-Antich, J.(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2), 118-128.
- Putallaz, M., & Heflin, A. H.(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89-216).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ner, R. P., Rolls, S., & Rohner, E. C.(1980).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ersonality organization among mex-can Americ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Behavior Science Reserch*, 1.
- Rubin, K. H., LeMare, L. J., & Lollis, S.(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1972).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adult psychiatric disorders. *Acta Psychiat. Scand.*, 48, 3-21.
- Quay, H. C.(1979). Classification. In Quay, H. C. & J. S.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1~42)*. New York : Wiley.
- Rudolph, K. D., Hammen, C., & Burge, D.(1997). A cognitive-interpersonal approach to depressive symptoms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33-45.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Sroufe, L. A., & Fleeson, J.(1986). Attachm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pp. 36-54), Hillsdale. NJ : Erlbaum.
- Schwartz, D., Mcfadyen-Ketchen, S.,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87- 99.
- Troy, M., & Sroufe, L. 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 2493-2511.

2005년 8월 31일 투고 : 2005년 11월 2일 채택